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일시 / 2022.01.18(화)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성주
주관 / 후백제학회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사진 가운데), 김종민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후백제' 포함돼야

후백제 역사적 위상 재정립 위한 국회 토론회

“짧은 역사가졌지만 높은 문화적 역량 갖춘 국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법 개정 추진에 뜻 모아”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권민기 기자 10면)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시)·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김종민 의원(논산)·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에서 주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와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100여년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

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진정환 학예실장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과장 과장근 군산대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추가 포함될 여건이 충분할 것으로 논의됐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후백제는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선명한 통치이념, 활발한 대외활동, 높은 문화적 역량을 갖춘 국가였다”며 “우리나라 고대사의 정립과 지역간 역사문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며 “전주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곤충산업, 전북의 미래 신산업으로

도, 올 19억 예산 편성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통합 지원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곤충산업의 규모화 및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유용곤충 사육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 ▲곤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9억원을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유용곤충 사육지원을 통해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해 생산비 절감하는 등 곤충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HACCP 기준 충족 가공 시설 구축을 통한 가공·유통 분야 육성을 위해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장비를 지원, 안전하고 깨끗한 곤충산물 생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 익산시, 21년 순창군에 가공·유통 시설이 구축됐으며, 올해는 사업 대상 범위를 농가 단위로 넓혀 5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로부터 3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곤충산업체간 계열화체계를 구축을 위한 ‘곤충산업화지원’에 나서 남원시에 곤충 자동화 생산 및 가공시설, 보관시설 등을 2개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균일한 제품 생산 및 가공을 통한 대량생산 체계 마련, 생산능률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억, 지

방비 100억) 규모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에 진안군 미안산 일원에 공동집하·가공유통 시설과 힐링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곤충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곤충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